



‘그림마켓:12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는 27일까지 대인예술시장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 열린다. <대인예술시장 제공>

# ‘12월의 선물’ 대인예술시장

‘올 한 해 마무리, 대인예술시장에서.’

대인예술시장이 12월 한달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친다. 작가들 작업공간을 탐방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소중한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연말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림마켓도 열린다.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묘수 3기’ 결과보고전 ‘모닥모닥’은 4일부터 27일까지 한평 갤러리 등에서 열린다. 입주 작가 10인

작가 10인의 아트포스터북’을 제공한다.

‘별별상상정원’에서는 4일 오후 3시-6시 예술체험 프로그램 ‘만들랑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켈 캔들 홀더 만들기’로 정지희 공방 1980 대표가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접수는 대인예술시장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byeoljang>)에 하면 된다.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는 2일부터 27일까지 ‘그림마켓 : 12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전이 열린다. ‘그림마켓’은 강미미·박자운·이정은 세 명의 작가가 매주 금요일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mj2market>)을 통해 한 가지 주제로 각자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모임이다.

이번에 수작과 연계해 열리는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원작 71점과 다양한 굿즈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벤트도 열린다. 그림마켓의 2022년 그림 주제를 정해추천 추천을 통해 랜덤으로 굿즈를 증정하며 전시작품 12번째, 25번째 구매자에게도 선물을 보내준다. 운영 시간 월-토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62-233-1420.

한편 오는 4일과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인예술시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 지난달 27일 22개월 만에 재개장 한 대인예술시장은 7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문의 062-233-14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입주작가 10인 대표작 ‘모닥모닥’전, 4·11일 오픈갤러리 ‘그림마켓:12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캔들 홀더 만들기

(강미미·고유진·김민재·손연우·박다은·유선진·유지원·이정은·최나래·최다솜)의 작품을 만나는 기회로 한평갤러리와 함께 작가 작업실이 전시공간으로 변모한다.

4일 오전 11시 전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한평 갤러리에서는 입주작가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고 개인 작업실에서는 윈도우 갤러리 형식으로 작가들이 대인시장에 머물며 지난 5개월간 작업했던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 4일, 11일 이틀간은 작업 공간 개방을 통해 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픈갤러리가 열린다.

그밖에 한평갤러리와 작가 작업실 7곳을 모두 방문하고 스탬프를 받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특별 제작된 ‘묘수

## 아시아 5개 도시 온라인 콘텐츠로 만나요

ACC ‘클링크:클릭 아워 스튜디오’ 22일까지 유튜브 공개



요르단 암만

광주, 자카르타, 나오시마, 암만, 타이페이 등 아시아 5개국 도시를 온라인 콘텐츠로 만나는 문화여행이 22일까지 펼쳐진다.

코로나로 해외 교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이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과 함께 아시아 5개국 도시와 예술계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마련했다. AC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공개되는 ‘클링크: 클릭 아워 스튜디오’가 그것.

영상은 광주를 비롯해,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나오시마(일본), 암만(요르단), 타이페이(대만) 등 5개국 도시의 기획자와 예술가 등이 각자의 도시와 예술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서예가 작가와 대만 황완린 작가는 고유의 시선으로 광주와 타이페이를 표현한 작품을 비롯해 창작 공간과 역사, 지역 먹거리, 볼거리 등을 소개한다. 일본의 시타미치 모토유키 작가는 예술 관광지 나오시마섬의 이야기를 실제 차를 타고 여행하는 듯한 영상으로 보여주며, 인도네시아 닌 자니 기획자는 창작공간인 아르코 랩스를 통해 자카르타 예술계 흐름과 동향 등을 소개한다.

요르단의 안세는 작가와 오마르 사알라 영상감독은 암만의 자연 풍광과 아울러 중동국가 예술인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보여준다. 국가별 영상 5종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토론 세션이 담긴 최종 결과보고회 영상 공개와 함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문의 062-601-447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중 하나다. 일상의 필수아이템인 휴대폰 속의 버튼 하나, 컴퓨터 키보드 위에 새겨진 자판 하나에 불과하지만 가상의 관계망을 촘촘히 연결해 시대를 규정하고, 현재의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게 해준다. 해시태그를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얼마나 빠르고 다양하게 확산되고 변화하는 지 알 수 있다.

해시태그를 통한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 전남대 한국화 전공 10인 10일까지 예술공간 ‘집’

들여다본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졸업생 10명이 함께 새로운 작품 세계 모색을 시도한 전시회 ‘#우물정’이 오는 10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참여작가이기도 한 박화연 작가의 기획으로 진행된다. 권예슬·나지수·박화연·설 박·양세미·왕샤오난·왕해음·윤준영·전정연·조하늘 등 10인의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각자 다양한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출품했다.

#해시태그는 그 모양새가 한자 ‘井(우물 정)’과도 같다. 예전, 우물은 식수를 제공하는 삶의 중요한 장소이자 생활의 지혜나 소문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해시태그는 옛 장소인 우물처럼 수많은 관계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시태그와 우물의 연계성에서 출발해 ‘#’를 각자의 다양한 해석을 담아 제작한 작품들이 모아졌다.

박화연 작가는 “우물과 해시태그는 실제와 가상이라는 서로 다른 장소성을 지녔지만 ‘관계의 매개’로서 존재해 온 공통된 지점을 발견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조명해 본 기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권예슬 작 ‘생각하는 공간’

## Future 미래 Forward 나아가다

광주대학교 사진영상드론학과(학과장 윤태준) 25회 졸업작품전이 7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 D(관장 강경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Future’(미래)와 ‘Forward’(나아가다)의 첫 이니셜에서 따온

## 광주대 사진영상드론학과 7일까지 졸업작품전

‘F’를 주제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전시에서는 다큐멘터리사진, 광고사진, 예술사진 등 작가 14명의 작품 60여점을 선보인다.

김성진 작가의 ‘틈’은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작품으로 조금의 빈틈도 없는 것이 아닌 ‘틈’이 있는 사랑을 표현하며, 사람의 삶과 삶이 맞닿는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패션, 코스메틱, 향수를 생산하는 파리의 브랜드인 입생로랑의 광고사진을 제작한 김지은 작가는 직선의 구조물을 배치해 제품의 간결하고 직선적인 매력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광주대 사진영상드론학과는 3년 연속 콘텐츠유통센터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진과 영상 미디어뿐만 아니라 드론교육도 전개하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해찬 작 ‘Space’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http://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